

“화려함 대신 진정성” 깊고 진한 이효리 담다

이효리 6집 ‘블랙’ 발매 기자간담회

10개 트랙 중 9곡 작사·8곡 작곡

어둡고 슬픈 내면 ‘진짜 나’ 표현



“서른아홉 살이 돼 스무 살을 돌아보니 안쓰럽더라고요. 20대 때 제일 듣고 싶던 말이 ‘예쁘다’였어요. 자신에게 예쁘다는 말을 안 하고 ‘난 왜 이렇게 다리가 짧지? 피부가 까맣지?’ 하고 타박만 했어요.”

가수 이효리(38)가 4일 오후 2시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에서 열린 정규 6집 앨범 ‘블랙(BLACK)’ 발매 기자간담회에서 신곡 ‘예쁘다’의 의미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효리는 여전히 강렬하고 섹시했다. 보통 쇼케이스에서 선보이는 화려한 퍼포먼스는 없었다. 검은 드레스를 입고 의자에 앉아 노래를 찬찬히 설명할 뿐이었다. 그러나 800석 규모 기자회견장은 그의 존재감으로 꽉 찼다.

정규 5집 ‘모노크롬(MONOCROME)’ 이후 4년 만에 돌아온 소감을 묻자 이효리는 특유의 발랄한 눈웃음 대신 담담한 미소를 지었다.

“뭔가 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앨범이 나오잖아요. 기다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래 하고 싶고 후배들과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멀리뛰기를 하기 전에 뒤로 물러선다는 생각으로 지냈어요.”

이효리는 이번 앨범 10개 트랙 중 9곡의 가사를 직접 썼고, 8곡을 작곡했다. 지난달 28일 선공개한 ‘서울’도 그렇게 탄생했다.

“‘서울’을 작사·작곡할 때 서울이 어두웠던 시기였어요. 광화문에서는 촛불집회가 열렸죠. 제주도에서 살면서 지켜보니 내 고향이 안쓰럽더라고요. 도시를 찬양하는 노래도 좋지만, 도시의 어두운 단면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울을 담아낼 곡이 있으면 어떨까 싶었어요.”

이번 앨범의 콘셉트와 타이틀곡 제목을 ‘블랙’으로 한 이유도 설명했다. 대중들이 걸그룹 ‘핑클’ 리더 출신의 이효리에게 기대하던 상큼 발랄한 이미지는 절제돼 있었다.

그는 “예전에는 염색도 안 해본 색깔이 없었고 메이크업과 옷도 컬러감이 많았다. 그런 것들을 다 걷어냈을 때도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줬지 의문이 생겼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항상 밝게 웃는 모습으로 사랑받았지만, 제 안에는 어두운 면과 슬픈 마음이 있다. 한쪽 면만 사랑받는 게 서글펐다”며 “이제 웃기 있게 모든 걸 보여주고 ‘진짜 나’를 내내 보여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노래를 소개할 때는 ‘제주도 소꿉감’ 생활도 풀어냈다. “제주도에서 변하지 않는 건 없다는 걸 느꼈어요. 왜 전에는 몰랐을까요? 다 놓고 다 죽고 지금의 괴로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인기와 영광도 영원하지 못하네...”

몇 년간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지내다 보니 동네 꼬마들이 자신이 가수였다는 걸 모르더라 웃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발소를 하셨는데, 그때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연예인이 되면서 화려해야 하고 멋있어야 하고...그러다 제주도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요가원에서 학생들에게 요가를 가르치고 이야기 나누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지, 직업이 가수였을 뿐이지’라고 되뇌어요.”

간만의 컴백에 대한 부담감도 내비쳤다. 남편인 가수 이상순(43)은 지난 3일 서울로 올라 연습실을 함께 가는 등 ‘외조’를 특별히 해주고 있다고 한다.

“공개방송 사전녹화 때는 팬들만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팬들은 다 시집갔을 나이인데, 올 만한 분들이 있을까 싶었어요. 또 여자 연예인이고 나이가 들었는데, 예쁜 후배들도 많은데 아직 화면에 나가도 될까 걱정도 많이 했어요.”

여성 뮤지션 후배들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이효리는 “뮤지션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선 젊고 예쁜 때만 활동하다 나중에는 묻히는 경향이 있다”며 “겉모습이 사그라지는 걸 받아들이고 내면을 키운다면 질량은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예전에는 예쁜 얼굴로 사랑받았다면 이제는 깊이 있는 울림이 있는 음악으로 점차 사랑받는 뮤지션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걸그룹 마마무는 눈빛에서 끼가 보인다. 그런 건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난다”며 “‘포스트 이효리’는 아이유인 것 같다.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음악적 위치를 구축한다”고 칭찬했다.

이효리는 “이번 앨범을 만들며 스무 곡 정도 녹음해놨다”며 “정규앨범 활동 뒤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노래가 있으면 가볍게 싱글앨범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SM-미스틱 다른 색깔이 만나

‘눈덩이’처럼 새로운 매력 키울 것



엠넷 ‘눈덩이 프로젝트’ 윤종신·헨리 등 협업

“SM의 이수만 회장님과 공감했지만, SM과 우리 미스틱은 서로 못 가진 성격을 가졌잖아요. 컬래버레이션이라고 하면 보통 비슷한 색깔이 섞이는 경우가 많은데, SM과 미스틱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더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4일 밤 9시 첫 방송 하는 엠넷 음악 예능 ‘눈덩이 프로젝트’에 출연하는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의 대표 프로듀서 윤종신은 이날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눈덩이 프로젝트’는 SM엔터테인먼트와 미스틱엔터테인먼트가 전략적인 제휴를 맺은 후 처음 시도하는 협업 프로그램으로 화제가 됐다.

미스틱 소속 가수 박재정의 SM 소속 NCT 마크에 대한 ‘팬심’으로 기획됐다는 이 프로그램에는 미스틱 수장 윤종신과 SM 싱어송라이터 헨리가 프로듀서로, 미스틱 여운혁 PD와 SM 이지예 PD가 연출자로 합류했다.

출연진은 서로의 음악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고, 중간중간 새 인물들도 합류시켜 ‘눈덩이’처럼 프로젝트를 불려겠다는 계획이다.

방송 첫 주부터 그 결과물이 탄생할 예정이다. “박재정이 오는 8일 SM 타운 콘서트 무대에 NCT 마크와 함께 오른다”고 이지예 PD는 미리 귀띔했다. 박재정이 “어렸을 때부터 SM의 음악과 가수들에 대한 동경이 컸다”며 “함께 무대에 오르는 게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윤종신은 “박재정은 미스틱에 대한 건 잘 모르고 완전히 SM 팬”이라고 애교 섞인 구박을 하기도 했다.

윤종신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SM과 미스틱은 콘텐츠를 바라보는 법, 생산하는 법 등 뉘씩까지 다른 회사”라며 “일례로 우리 회사에서 참여하는 하림과 SM의 헨리는 색깔은 다르지만 둘 다 천재성이 있다. 둘이 섞이는 과정에서 또 다른 색깔이 나온다는 것을 실험 속에서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프로듀서로 맞붙게 된(?) 헨리에 대해서는 “저에 비해 연차는 많지만 달리지 않고 약기 연주 능력은 더 탁월하다”며 “헨리는 제게 ‘올드하디’고, 저는 헨리에게 ‘얼치기 음악’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며 활발한 리액션을 주고받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제작진은 ‘눈덩이 프로젝트’의 기한에 대해서는 “정해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지예 PD는 “제한을 두고 싶지 않다”며 “지난 4월부터 양사가 매주 만나며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분위기가 좋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자원들이 들어올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TV소셜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사람, 산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재) 50 UHD 한국의 유산(재)	00 다큐멘터리 3일(재)	50 빛날 스페셜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이름 없는 여자(재)	00 MBC 정오뉴스 20 군주(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총질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3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55 닥터 365
2	40 코리아 지오그래피 플러스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25 푸르기식교실 55 프리리얼 2	00 뉴스브리핑
3	005 시사기획 창(재)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유치원	25 별별머느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00 MBC 뉴스M	00 SBS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뉴스	00 SBS 오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수상한 파트너 (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건축물 남도에 살리라
7	00 KBS 뉴스 7 35 공감다큐.사람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로봇고 끔자막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 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별별머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토론'10' 55 숨터	00 7일의 왕비	00 군주	00 수상한 파트너
11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의 향기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싱글 와이프
12	30 특선 UHD 다큐멘터리 (만화방 거문방)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40 MBC 뉴스 24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오상진의 베트남 피싱로드 -3부 무인대 사람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꼬마버스 타요(1)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웬스 08:00 땀땀 땀 땀 땀 땀 땀 08:30 똑딱맨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오정 큐비주 09:15 알매 까투리(재)	09:30 물랑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재)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삼계탕과 깻잎장아찌)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초대석(재) (맨발의 디바, 소리 위를 걷다 가수 이은미) 13:4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왜 인문학 시선인가?)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키탐험대 15:20 마샤와 곰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이러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16:45 땀땀 땀 땀 땀 땀 17:15 뽀롱뽀롱 뽀로로 17:30 로보카 폴리 17:45 똑딱맨(재) 18:00 생방송 퓌퓌! 보니하니~4 19:00 어벤저스: 울트론 레볼루션	19:30 EBS 뉴스 19:55 메디컬 다큐-7요일(재) 20:50 세계테마기행 (시간의 중심에서 서서 에피드르 3부 영카의 후에 인대스에 살다) 21:30 한국기행 (나는 편이다 3부 만재도의 미역특공대) 21:50 EBS 창시특별기획-최종면접 22:45 극한직업 23:35 장수의 비밀 24:25 지식채널 e 24:30 EBS 초대석 (과학, 싫어하십니까?)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5일 (음 윤5월 12일 癸巳)

<p>子</p> <p>48년생 공허하여 그 어떤 실속도 없다. 60년생 내버려 두면 불신의 굴이 깊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라. 72년생 우연이나 천연의 혜택을 입을 수도 있다. 84년생 자유롭게 뜻을 펼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을 수다. 행운의 숫자 : 28, 09</p>	<p>午</p> <p>42년생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이다. 54년생 비웃을 때 새롭게 답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66년생 해낼 수 없는 일이나 빨리 포기할수록 이익이다. 78년생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90년생 길조가 시원스럽게 내리뻗는다. 행운의 숫자 : 66, 50</p>
<p>丑</p> <p>49년생 귀인을 만나거나 귀물을 접할 수도 있는 날이다. 61년생 심리의 저변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포기할 줄 알아야 새로운 것을 취할 수 있다. 73년생 망망대해의 일엽편주이다. 85년생 선입견에 의한 추측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 행운의 숫자 : 51, 82</p>	<p>未</p> <p>43년생 대단히 훌륭한 결과를 낳았다. 55년생 실속이 있어 보이나 확실치 불잡아라. 67년생 가끔씩 내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 79년생 반가운 소식이 오거나 손님이 찾아 올 수도 있다. 91년생 끝까지 경청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5, 14</p>
<p>寅</p> <p>50년생 혼란스러운 때 유일한 조연자가 나타나는 동세이다. 62년생 개념의 혼란이 생기고 산만해지기 쉬운 때이다. 74년생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86년생 다각적인 관점과 인식이 절실히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01, 73</p>	<p>申</p> <p>44년생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예의 주시하라. 56년생 부딪음을 차야 불이 일어나게 된다는 명학한 사실을 알라. 68년생 경중은 저울로 달아 봐야 한다. 80년생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형태이다. 행운의 숫자 : 33, 05</p>
<p>卯</p> <p>51년생 상호 관련된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로 가고 있다. 63년생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75년생 일부 전진을 위한 것이라면 이 보 후퇴도 무방하다. 87년생 노력하면 된다. 행운의 숫자 : 20, 56</p>	<p>酉</p> <p>45년생 일장춘몽이나 참으로 허무하게 그치 않았다. 57년생 추측만으로는 화를 자초하리라. 69년생 진중하게 처리해야 할 때다. 81년생 사실상 확인됐을 때는 이미 늦으니 예견한 후에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73, 64</p>
<p>辰</p> <p>52년생 초심을 회복한다면 순탄한 편국을 조성할 수 있다. 64년생 목표를 좀 더 높게 설정해도 무방하다. 76년생 현실 상황에 따르는 것이 도리이다. 88년생 전후 사정을 투명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0, 23</p>	<p>戌</p> <p>46년생 무의식적인 실수가 판국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라. 58년생 이치에 밝다면 사물에 얽매이지 않는 법이다. 70년생 부당하다면 결코 용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82년생 이익이 따를 것이니 무조건 수용하고 불 일이다. 행운의 숫자 : 44, 89</p>
<p>巳</p> <p>53년생 순간의 현상이니 의연히 대처하라. 65년생 별감이 없으니 평상심을 유지하라. 77년생 정황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해야 하니라. 89년생 작은 배가 큰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 비유할 만하다. 행운의 숫자 : 88, 77</p>	<p>亥</p> <p>47년생 후회를 할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니 사전에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59년생 성심껏 행한다면 좋은 전례를 남길 수 있는 기회이다. 71년생 대충해서 될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하라. 83년생 좌우를 살피면서 나아가라. 행운의 숫자 : 51, 59</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